장성군, 마을 축제로 지역 매력 알린다

10월 25일 북이면 '풍년감사제'
11월 1일 남면 '단감이랑 안평米'
날자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 돌입

장성군이 소규모 마을축제를 통해 지역 특산물과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공동체 화합을 도모한다.

장성군은 북이면 '풍년감사제'와 남면 '단감이랑 안평米랑 축제'를 각각 오는 10월 25일과 11월 1일에 개최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장성군에 따르면 북이면 삼남대로거리예술한마당추진위원회가 최근 북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첫 전체회의를 갖고 축제일을 확정하고 대회 준비에 착수했다.

회의에서는 신임 축제추진위원장으로 이병석 북이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추대한 데 이어, 올해 개최할 소규모 마을축제에 관해 폭넓게 소통했다. 또 주제는 한 해 수확을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서로 나누는 '풍년감사제'로 의견을 모았다.

축제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하기로 했다.

이병석 축제추진위원장은 "북이면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매력적인 축제를 선보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남면은 축제위원회 회의를 열어 특산물인 황토단감과 안평쌀을 주제로 '단감이랑 안평米(미)랑 축제'라는 소규모 마을축제 구상을 마무리했다.

특히 황토단감 수확 체험, 단감껍질 길게 깎기 대회, 안평쌀 떡메치기 체험 등 남면 축제만의 개성을 느낄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해 주목을 끌고 있다.

농산물 축제인 만큼,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와 먹거리 부스도 풍성하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만호 장성 남면장은 "소박하지만 의미있는 소축제 문화가 정착되는 뜻깊은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장성 대표 마을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 북이면 삼남대로거리예술한마당추진위원회가 최근 북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첫 전체회의를 갖고 축제일을 확정했다. 〈장성군 제공〉

담양군, 손자손녀 돌보면 '돌봄수당'

월 40시간 이상 30만원 지급

담양군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에게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며, 손자녀는 생후 24개월부터 35개월이어야 한다. 조부모의 연령은 80세 이하로 제한된다.

조부모는 사전교육 200분을 이수한 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활동일지는 출결 시스템을 통해 작성하며, 이를 통해 매월 돌봄 수당이 지급된다.

정철원 장성군수는 "부모의 경제활동이나 기타 사유로 자녀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부모와 손자녀 간 유대감 강화와 사회적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

나주시가 11일부터 22일까지 '벼 병해충 중점방제 기간'을 운영한다. 나주 벼 논. 〈나주시 제공〉

나주시, 11~22일 벼 출수기 병해충 중점방제

나주시가 풍년 농사를 결정짓는 벼 출수기를 앞두고 주요 병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11일부터 22일까지 '벼 병해충 중점방제 기간'을 운영한다.

벼 출수기(出穗期)는 벼 이삭이 줄기 밖으로 나오는 시기로, 벼가 꽃을 피우고 수정해 쌀알을 형성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생육 단계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8월 출수기를 전후로 고온다습한 기후 조건이 지속함에 따라 이삭도열병, 세균성벼알마름병, 벼멸구 등 주요 병해충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삭도열병은 출수기 전후 저온 다습한 날씨에 급속히 확산하는 병으로 초기에 철저한 방제가 요구된다.

또 세균성벼알마름병은 강우 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아 사전 예방과 함께 조기 방제가 필수적이다.

중국 등 외국에서 유입되는 벼멸구는 출수기 이후 산란이 집중되며 피해가 급증하는 해충으로 약제를 볏대 아래까지 충분히 침투시켜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나주시는 중점방제 기간 관내 병해충 발생 상황에 대한 정밀 예찰을 하고 지역 농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형남열 나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출수기 전후 시점에 이삭도열병과 세균성벼알마름병을 우선 방제하고, 벼멸구까지 함께 방제하는 종합 방제가 필요하다"라며 "적기에 방제를 시행해야 고품질 쌀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함평군 양파 연작피해 막는 태양열 소독 실천 당부

8월 고온기 병해충 예방 적기

함평군이 양파 재배지의 연작피해 예방을 위해 여름철 고온기를 활용한 '육묘상 태양열 소독' 실천을 농가에 당부했다.

양파는 같은 밭에서 재배를 반복하면 노균병·모잘록병 등 토양 병해충과 잡초 발생이 심해져 부실한 묘가 생산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모종을 키우는 밭을 고온으로 처리하는 태양열 소독이다.

소독 방법은 1000㎡(약 300평)당 미숙퇴비 3000kg, 석회 200kg을 살포한 뒤 경운해 육묘상을 만들고 충분히 물을 줘 포화상태를 만든다. 이후 투명 비닐로 육묘상을 30일가량 덮어 고온 상태를 유지하면 토양 내 병원균과 고자리파리 알 등을 죽일 수 있다.

특히 8월 고온을 활용해 토양 지온을 높이면 방제 효과가 커지고 두둑뿐 아니라 고랑까지 비닐을 덮으면 병해충 예방 효과가 극대화된다. 비닐 피복은 잡초 발생도 억제해 제초에 드는 노동력을 최대 88%까지 줄여 농촌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문정모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태양열 소독은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병해충 방제 방법"이라며 "농가에서는 시기와 절차를 준수해 실천해 달라"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흥군에서 개최한 초등생 탁구대회 모습. 〈장흥군 제공〉

초등 탁구 국가대표 상비군 장흥서 전지훈련

장흥군이 11일부터 24일까지 초등 탁구 국가대표 상비군 전지훈련을 유치한다.

이번 전지훈련은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초등부 대표 선수와 지도자 총 50여 명이 참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훈련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훈련 프로그램은 기초체력 강화, 전술 훈련, 심리 상담, 인성 교육 등 영역으로 구성돼 선수들의 경기 집중력과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장흥군은 실내체육관 등 주요 공공체육시설의 안전점검을 사전에 마쳤다.

또 전지훈련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 해동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장흥126타워 등 지역 명소 방문 및 특색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등의 혜택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참가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라며 "탁구 꿈나무 전지훈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스포츠마케팅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군 청년활동포인트제 참여 2배 증가

1만 포인트 최대 10만원 상품권

화순군이 청년 정책 인식 확산과 실질적인 혜택 제공을 위해 시행 중인 청년활동포인트제가 2년차에 접어들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 청년 정책 또는 청년센터를 홍보하거나 청년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일정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누적 1만 포인트 달성 시 화순사랑 상품권으로 연 최대 10만원까지 교환할 수 있다.

화순군은 2024년 4월부터 청년활동포인트제를 시작했으며 첫해에는 91명의 청년이 신청해 33명이 총 132만원의 상품권을 받았다. 올해에는 제도 인식 확산으로 135명이 신청해 활동 중이며, 현재까지 31명에게 상품권을 지급했다.

포인트 적립 대상 활동은 ▲화순군 청년센터 홍보게시물 게시 ▲청년센터 프로그램 참여 ▲청년센터 이용 설문조사 참여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주관 행사 참여 등으로 다양하다. 신청은 화순군 청년센터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이메일(hwasunyouth@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예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5년 8월호
藝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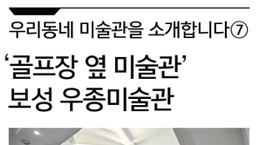
2025년 7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화제의 공연
전통과 현대 음악의 경계를 흔든다
ACC×Music Festival '엑스뮤직페스티벌'

문화 화제
여행자의 Zip단Zi성 신춘문예
'광주에서 출발한 나의 여행은 어디쯤 왔을까?'

호남의 누정시즌2 ②–담양 식영정
소쇄원·환벽당과 '일동지삼승' 불려
권력·명예 내려놓고 유유자적 자연 속 '은거의 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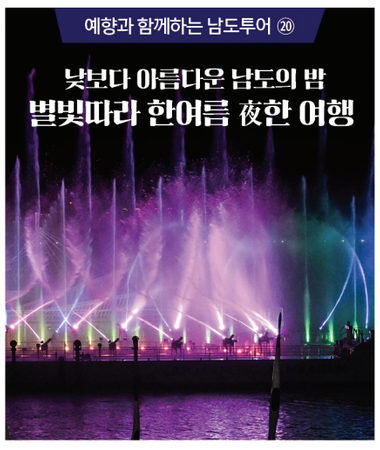
유럽 소도시 기행④
12세기 성으로 시간여행
벨기에 겐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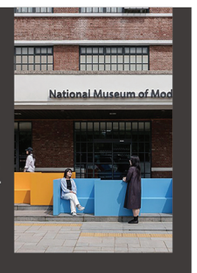
우리동네 미술관을 소개합니다⑦
'골프장 옆 미술관'
보성 우종미술관

조인호의 키워드로 읽는 광주 전남 미술사②
고려청자와
조선 분청사기

예향과 함께하는 남도투어 ⑳
낮보다 아름다운 남도의 밤
별빛따라 한여름 夜한 여행



공간의 재발견⑤
박제된 공간 벗고
현대미술의
메카 되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MMCA